

The Road Not Taken

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,
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
 And be one traveler, long I stood
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
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;
 Then took the other, as just as fair,
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,
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;
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
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,
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
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.
 Oh,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!
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,
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.
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
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:
 Two roads diverged in a wood, and I--
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,
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.

가지 않은 길

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.
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어
 오랫동안 서서
 담뿍 속으로 꺾여 내려간 다른 한 길을
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.
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.
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은.
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하여
 그 길도 거의 갈아질 것이겠지만.
 그 날 아침 두 길은 낙엽 쌓은 자취 적어
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.
 아,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.
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
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.
 오랜 세월이 흐른 훗날에 어디에선가
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.
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
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
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.

새해가 밝았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내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은, 새로운 친구들은— 어떨까? 이런 가슴 설레는 마음을 숲에 비유한 아름다운 시(가지 않은 길)을 쓴 분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이고 4번이나 풀리처 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프로스트입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사랑받는 이 시는 감수성 예민했던 시인의 생애만큼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.

소년에게는 소년의 마음에 알맞게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또 나이든 이에게는 아, 그래! 하면서 머리를 꼬덕이도록 깊은 공감을 주는 이 두 갈래의 길은 우리들 모든 인생의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에 걸쳐 펼쳐져 있지요.

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나지 않은 싱싱하고 고요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비한 새 해의 숲에 서서 자연의 큰 선물인 숲의 이야기와 또 올해는 어른들의 인생 이야기에 또 귀 기울여보는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김 영 숙 (시인, 해오른누리 기획실장)